

# 염생식물 활용 특허 기술 이전

### 전북대 약대-LED농생명 융합기술연구센터-동아제약, 지속 협력키로

전북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생식물을 활용한 합염 및 폐 손상 개선 물질 개발 기술이 동아제약(주)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된다.

8일 전북대 산학협력단(단장 조기환)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백상환)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전북대 약대와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동아제약(주) 등 3자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전북대는 지난 7일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백상환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전북대 약대와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동아제약(주) 등 3자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이 기술은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사업의 성과로, 진중식 교수(한약 자원화과) 연구실과 전북대 약학대학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했다.

이는 기존 바닷가 잡초로 여겨지던 국내 자생 염생식물의 항염증 효과와 폐 손상 개선 기능을 밝혀 기능성 및 의약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한 혁신적 기술이다.

또한 향후 염생식물이 활성화 될 경우 원료뿐만 아니라 간척지 제염,

해안 조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다.

이날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염생식물의 표준화, 임상시험 등 최종 제품화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항염치료제 및 폐손상 개선의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북대와 계약을 체결한 등

아제약(주)은 1992년 창립해 일반의약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주 사업 분야로 하는 제약 기업으로, 박카스를 비롯해 판피린, 써큐란, 가그린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대형 브랜드를 대거 보유한 컨슈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동아제약(주) 윤춘희 개발전략실장은 "첨단 핵심 식물 소재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북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우수한 국산 염생식물 소재를 확보하고, 동아제약의 연구력으로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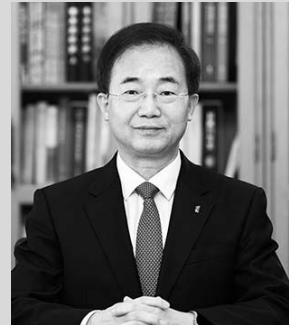
조기환 단장은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간 공동 연구를 통해 발명된 유망기술이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만나 날개를 단 기술사업화의 우수 사례"라며 "상호 지속적 협력을 통해 염생식물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시장을 이끄는 산·학 협력 선순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지역·대학 상생 위해 협력”

### 박진배 전주대 총장,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선출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진배 총장은 8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진배 총장을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전국 7개 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연합회에서 전북권 대표 총장직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전북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대비한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임 회장인 박병수 원광대 총장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유치,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 강화, 국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전주대를 비롯해 군산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등 10개의 4년제 대학교 총장이 모여 대학 상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수많은 지역 현안에 대해 대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장애학생 도우미 시상식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민수)은 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2 장애학생 도우미 시상식 - 너랑 나랑은 굿프렌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도우미란 통합학급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이해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교육활동 참여에 도움을 준 친구를 말한다.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매년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 상을 주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총 5명에게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서 교육감은 "좋은 친구의 행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결실들을 걷어내고 배려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변함없이 좋은 친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2 장애학생 도우미 시상식 - 너랑 나랑은 굿프렌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장애학생을 도우며 통합교육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전북대 스타트업 창업기업, 창업경진 '우수'

### 에너지플리캠, '도전! K-Start up 2022' 왕중왕전서

전북대학교 스타트업 기업인 에너지플리캠(대표 이규하)이 최근 열린 '도전! K-Start up 2022' 왕중왕전에서 예비창업리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11개 정부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다. 올해 5,420개 팀이 8개 권역 예선리그에 참가해 지난 8월까지 발표평가를 거쳐 210개 팀이 본선본선에 진출해 왕중왕전을 통해 각각 우수 10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규하 대표는 전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희망전

북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연구 기반 기술 상용화 전략으로 '수소연료전지의 저비용과 고내구성'을 확보한 것이 비창업리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이번 왕중왕전에서 최종 수상한 20개 팀(리그별 10팀씩)은 순위별로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됐다. 또 예비창업자 및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의 사업화자금 및 기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에서 각각 가점 부여 및 서류평가 면제의 특전도 받는다. /정은성 기자

###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 신임교원 연수 성료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는 2022학년도 신임교원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8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신임교원연수는 hybrid class 형태로 실시간 온라인과 현장연수, 오프라인 개별활동으로 운영,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신임교원의 교수역량 향상과 교원 간의 교류를 증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2022학년도 하반기 신임교원연수에 참여한 교원은 나지훈(사회복지학과), 유진하(실용음악학부), 장은지(교양과)로 총 3명이다.

신임교원연수는 대학과 교수학습, 성공적인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기술의 핵심적 기술과 효과적인 방법, 학습평가 교수능력 평가 및 개선 교수법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One-Stop 수업컨설팅 참여를 통해 신임교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번 연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8주로 단축하고,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hybrid class 형태로 운영해 신임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성주 센터장은 "이번 신임교원연수의 새로운 운영방식(hybrid class) 도입을 시작으로 본교 교원연수의 지속적인 혁신과 교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스마트기기 보급 교육 공동체 의견 청취

###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 보급사업 공청회 열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전북도의회 등 150여 명의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사업은 서거석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2024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일부 시도는 보급을 이미 완료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21.4%의 낮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어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전주유이중학교 정진욱 교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해 발표했다. 또 전주송원초



전북도교육청은 8일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등학교 최승화 교사는 스마트기기가 학교 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에 최적화된 공간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정희 도의원 등 토론자들은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문제, 분신 및 파손에 따른 순해배상,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 절제, 교사의 역량 강화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의 교육적 활용 방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 수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스타트업 기업인 에너지플리캠이 최근 열린 '도전! K-Start up 2022' 왕중왕전에서 예비창업리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 성황리 개최

'2022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WBIF)'이 지난 6~8일 전북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세계 바이오 헬스의 글로벌 거점 NGO인 WBIF(대표 채수찬)가 주관하고,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와 전주시,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했다.

6일 1일자 포럼에서는 출가세포 치료와 장기유사체(Organoids)를 주제로 한버드 외대 김광수 교수와 김진 연구원, 최동호 현안대 의대 교수, 웨일 코넬대 Shahin Rafii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기업에서는 ORGANOSCIENCES의 이경진 CTO가 장기유사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패널로 참여한 김광수 교수는 현재 하버드 외대 맥린병원 분자신경생물학실험실 소장으로서 재직 중으로, 지난 2020년 맞춤형 출가세포로 파킨슨병 임상 치료를 세계 최초로 성공한

전문가다. 이어 반려동물 치료제를 주제로 한 2일자 포럼에서는 스탠포드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반려견 맞춤형 암 치료제개발기업 Imprimed를 창업한 임성원 대표가 참여해 바이오메드와 AI 결합을 통한 최적의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Stand Up Therapeutics의 유준상 대표가 척추 손상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3일자 포럼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주제로 KASIT 임지용 교수와 전북대 안상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Sanofi, Bluebird, Limbitx, Sanofi, WELT 등 글로벌 기업과 디지털 치료제 협회(DTA)의 CFO인 Megan Gaba가 참여해 전세계 바이오 헬스의 가장 큰 이슈인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정은성 기자